말씀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삼상15:1-9) 11/8/2026

오늘은 미국의 베테랑 데이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군 선교 주일이다. 먼저는 미국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우리 교회로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군에 가 있거나 군 사역을 하고 있는 군 선교사들과 군에 가고자 준비하는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20여명이 군선교사들이 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사로 서기를 강조하셨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출12:41)라고 했고, 포로로 흩어졌던 렘넌트들을 향해 하나님의 큰 군대(겔37:10)라고 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영적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딤후2:3-4)로 서라고 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는 면에서 메시지를 잡아야한다.
본문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또 한번 실패한 사울의 모습이다. 이길 수 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한 전쟁이었다. 이들을 보내면서 중요한 명령을 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반드시 다 죽이고, 그 소유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 소유물(전리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다는 것이다(21절). 사실은 사울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합리화, 또는 핑계였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다.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치명적 실패가 된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 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결국 실패가 된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고(11절),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계기가 된다(23절).
1)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
① 아담의 실패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언약을 깬 결과가 되었다(호6:7)
지나온 시대와 이 시대의 모든 성도의 실패, 교회의 실패도 여기에 왔다.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그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것이다(벧후3:16, 계22:18-19)
②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22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 부모 순종,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다. 순종의 시작이다. 특히 군인이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끝난 것이다. 군인의 최고의 힘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2)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신다(23절)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결국 불순종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시간이 온 것이다.
첫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고,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3)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결과로 사울에게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삼상16:14).
계속 죄의식, 불안, 욕심, 경쟁의식에 시달리다가 악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2.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1) 말씀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① 첫 인생 아담이 말씀을 놓치고 범죄한 이후에 주신 것이 복음의 말씀이다(은혜 언약). 그것이 창3:15. 창3:21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좋은 교훈도 있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율법도 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롬3:20, 갈3:24)
② 모든 인생은 이 은혜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구원도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라고 했다(롬10:17)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다(엡1:13-14)
③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상처, 실패, 우울증, 정신문제 치유될 수 있다(사61:1).
30년 목회에서 가정 위기, 우울증, 자살 충동, 공황 장애, 중독, 귀신들림,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제자로 세워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군 현장에서는 더욱 이 복음 외에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
군대 가기 전에 시작된 상처, 영적 문제들이 군대에서 나타난다. 전쟁을 다녀오면 더 심각해진다. 선교지이다.
2)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이 붙잡아져야 한다.
①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길 수 밖에 없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남김없이 죽이고, 버리라고 한 이유도 영적 전쟁의 예표이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피를 바르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 처음 가나안으로 갈 때 첫 대적이 아말렉이었다.
이스라엘이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것이다. 계속 이유 없는 악한 짓을 한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다(2절). 우리의 대적 사단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 전쟁을 하라는 것이다.
② 전도도, 선교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고(막3:13-15, 눅10:19), 이 복음을 믿고 전할 때 먼저 귀신이 꺽일 것이라고 했다(막16:17-20). 직장이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도 이 전쟁부터 해야 한다(롬16:20)
③ 현장에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
포기한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유기"(롬1:24-25)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우상을 고집하고, 마음은 완전히 굳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준비된 사람은 예정된 사람들이다(행13:48)
문제는 누가 유기된 사람인지,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다(7포인트 제자)
3) 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전달되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라.
강단은 보좌와 성도를 잇는 축복의 통로이고,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루는 일을 한다고 했다(시103:20-21).
① 에스겔47장에서 예언된 축복이고, 행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가 된 것이다(행2:42)
②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고, 경제도 축복하셨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고 했다(행2:47)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정확히 강단 말씀을 잡고, 믿고 따라가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살전2:13)

결론-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파수꾼, 망대, 그래서 나온 언약이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군선교사들에게 큰 승리의 증거들이 넘치길 축복한다